# 여수 경도 개발 또 다시 '무산' 위기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전면 재검토" 지시
## 지역사회 거센 반발·공정위 조사 등 부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계열사 부당대출 의혹과 지역 정치권 반발 등에 부담을 느낀 미래에셋이 최근 사업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26일 미래에셋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은 현재 경호초등학교 이설공사와 골프장 정비공사, 해양친수공간 및 관광호텔 조성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중이였다.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관광단지 조성에 나섰으나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에 계열사 부당대출 의혹이 있다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사업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비를 대출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DK가 설립한 신규 시행법인 GRD가 계열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등을 현장 조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경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여수시의회는 이상우 시의원이 발의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 을 가결했다.

결의문에는 국회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과 감사원이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지역의 반발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논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5㎢에 1조 5,000억원을 투입, 호텔·콘도·워터파크·인공해변·케이블카·쇼핑몰을 대단위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길용현 기자

## 광주시, 청년부채 연체해소 지원

### 재무상담 후 40명에 1인당 80만원 지급

광주시는 광주청년 금융복지사업(청년드림은행)을 통한 청년 부채 연체해소 지원대상자 40명을 다음달부터 추가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 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광주 청년 29.9%의 부채가 증가하고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경험이 11.6%로 나타나는 등 청년의 경제상황 악화가 나타난 결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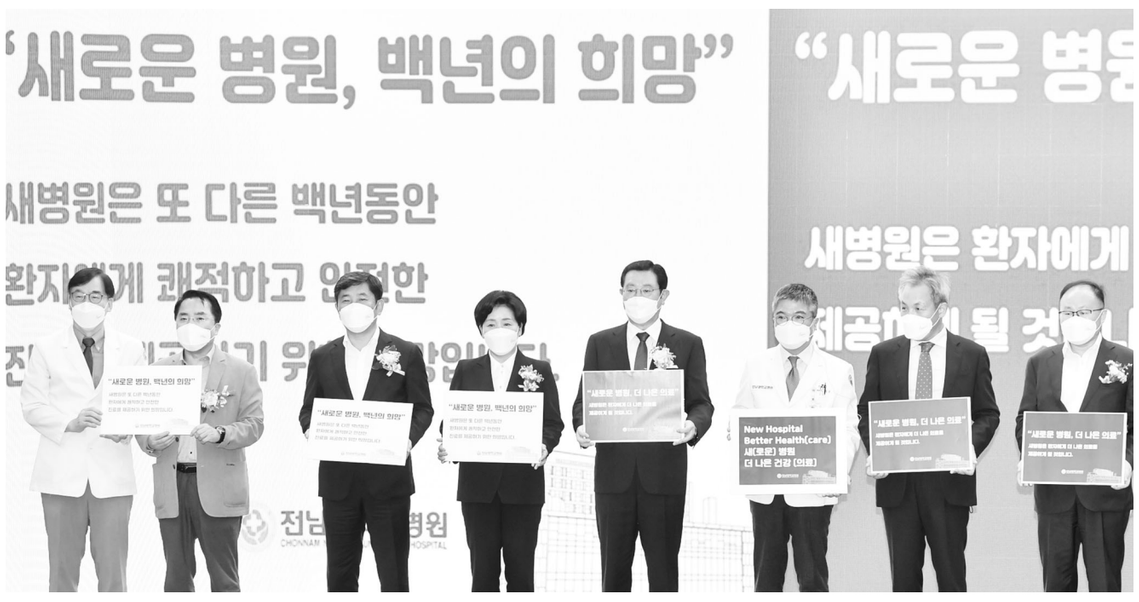
'청년드림은행' 사업은 돈과 빚으로 고민하는 만 19~39세 광주 청년을 위한 부채해소 지원 사업으로, 1대1 재무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용회복기관 동행 연계지원,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드림은행 재무상담 후 내부심사를 통해 40명을 선정하고 1인당 8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광주 부채청년 150명에게 연체해소 지원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상담은 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521-2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는 물론 장기연체 등으로 고단한 청년들에게 이번 추가 지원은 부채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드림은행 금융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도 예방하고 삶을 재설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대병원 개원 111주년 기념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동구 전남대병원 명학회관에서 열린 '전남대병원 개원 111주년 기념식' 에 참석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정성택 전남대총장,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립수목원 내년 5월 개장

### 남도숲·가을정원·향기원 구성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에 내년 5월 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수목원은 24만6,948㎡ 일원에 남도숲 등 3개 지구, 가을정원 등 9개 정원, 향기원 등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방문자센터와 수목관리동 건축물 기초작업을 마쳤고, 도로와 우수시설 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에 들어간다. 특히, 나무 일부는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등 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대형목을 활용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개발 등으로 베어질 위기에 있는 나무를 효과적으로 옮겨 심어 가치 있는 녹색자원을 보존하고, 수목원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목원 조성 예산도 33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백운교차로 등 9곳의 소나무 등 52종 4,483그루를 수목원에 옮겨심기로 하고, 지난 8월까지 3,507그루를 수목원 옆 양묘장에 가식한데 이어 일부 대형목은 컨테이너 화분 형태로 반입했다. 컨테이너 화분에 심은 나무는 수목원에 다시 심을 때 별도 굴취작업이 필요없고 나무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공사에 맞춰 추진한다. 수춘천 중 수목원 구간 0.7㎞는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석 돌쌓기 공법으로 시공한다.

이동 편의를 위해 교량 2곳을 설치하고, 수목원 경관과 조화를 위해 제방 산책로의 통일감을 부여하며 공조팝나무와 덩굴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 도내 관광업계 44억 규모 융자 지원

### 숙박·야영장·여행업 등 10개 업종…1%대 저금리

전남도는 도내 관광업계에 44억 원 규모의 제4차 관광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여행업 등 10개다. 신축, 개보수 등 시설자금은 최대 15억 원, 운영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

이번 융자지원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 야외 관광활동에 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오락 및 관광 체험시설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최대 2억 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오락 및 관광 체험시설' 은 레크리에이션용 궤도,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여행 흐름으로 급부상한 캠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야영장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청기한은 10월 22일이다. 시군 관광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융자 시행 기간도 연장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2차례 융자금 상환유예를 해 12개 업체가 10억여 원의 융자금 상환유예를 받았다.대상은 현재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융자업체다. 신청 기간은 10월 22일까지며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시행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원자재, 인력수급 등 문제로 시설공사 지연이 잦은 상황에서 기한에 융자금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길용현 기자

# 도, 내년도 어촌뉴딜300 공모 총력

## 여수·신안 등 13개 시·군 66곳 해수부에 신청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13개 연안 시군 66개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군별로 여수 10개소, 신안 14개소, 고흥 12개소, 완도 7개소, 진도 5개소, 무안 5개소, 해남 4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다 선정돼 사업비 7,633억 원(국비 5,34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전국 250개소 중 전남이 82개소로 33%를 차지했다.

특히 신안 만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첫 준공지로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30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 그동안 여객선으로 섬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종선(작은배)으로 옮겨타야 했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이 가장 많아 수산업과 어촌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부분 오지에 있고 개발 여력이 부족해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하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각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을 수차례 실시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준비했다.

공모사업 평가는 10월 서류·발표평가, 10~11월 현장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12월 초 5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남의 여건상 절실한 만큼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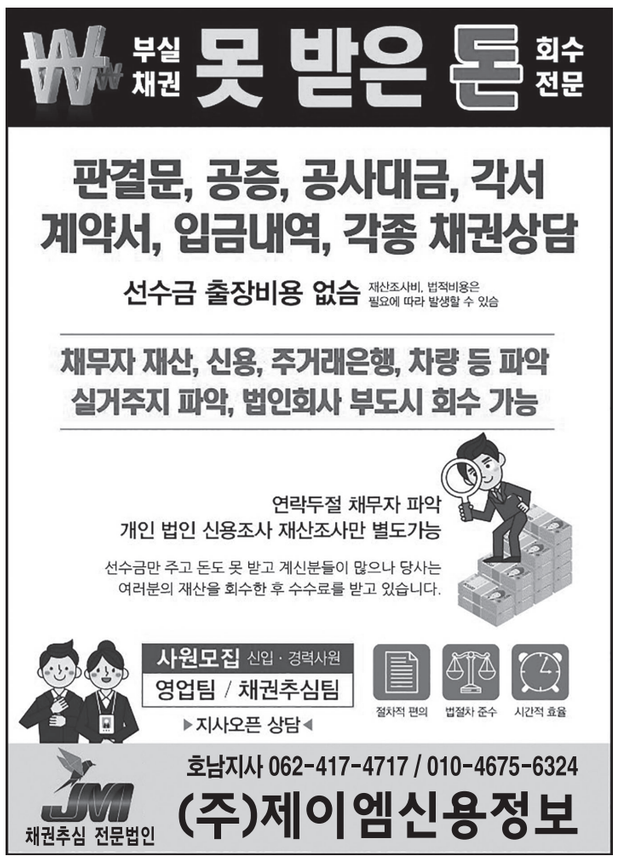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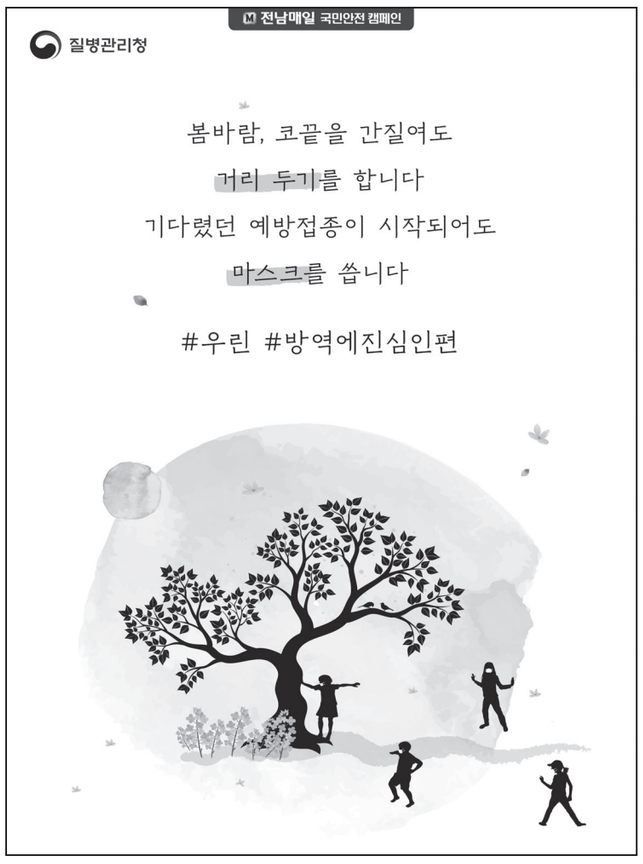
## 도,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 선제 대응

전남도는 절임배추의 수요가 가장 많은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판매 확대 대책' 을 세워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김장 배추 최대 주산지인 전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격 하락 우려 등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도내 절임배추 생산자 1,036곳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식약처에서 제

김장철 성수기인 11월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최대 30% 할인하는 절임배추 특판행사도 추진한다.

대규모 수요처 발굴에도 나선다. 김치 가공공장과 절임배추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 전문 유통업체 등과 사전 구매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장철에 '김치나눔행사' 를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펼친다. /길용현 기자